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6 장



벤치형 테이블들이 식당 홀의 가장자리를 따라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거대한 기둥들이 평행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기둥들은 마치 불길한 발톱처럼 높은 아치형 천장을 향해 뻗어 있는 비행 부벽과 갈비뼈 모양의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홀 중앙에는 거대한 철제 가마솥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끊임없이 감도는 한기를 몰아내고 있었다. 몇몇 수도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홀에 남아 수도원에 거주하는 수도사들과 시종들, 그리고 수도원의 모든 문과 구석을 지키는 듯한 불청객 병사들 사이에서 매일 벌어지는 충돌에 대한 최신 소문들을 속삭이고 있었다. 이반은 식탁에서 생선 스투 한 그릇과 빵을 집어 들고, 덩성덩성 모인 사람들을 뒤로하고 식당 밖으로 나섰는데, 그때 숨이 턱까지 차오른 오디노 수도사가 그를 하마터면 차로 칠 뻔했다.

“오디노!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잖아!” 이반이 그를 꾸짖었다. “어디 있었어?!” 오디노는 이반의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 이반의 소매를 쳐다봤다. 소매에는 생선 스투가 튀어 더러워져 있었다.

오디노는 숨을 들이쉬었다. “미안해, 이반.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지금 당장.” 오디노는 그를 건물 바깥쪽 모퉁이로 데려갔다.

“에 대한?”

“새 추기경이 문석을 열려고 하는군!” 오디노가 속삭였다. 이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뒤로 기대며 눈을 가늘게 떴다. “내 말이 맞다.”

"술을 너무 일찍 마시는 건 아닐까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오디노, 우리는 곧 수도원을 떠날 거야. 난 재촉할 필요 없어."

"이반! 난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박차를 가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우연히 들었어.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이야."

이반은 그의 항변을 일축했다. "훌륭하군. 이제 라자로에게 남은 음식을 가져다줘야겠군."

이반이 떠나려 하자 오디노가 그의 팔을 꼭 붙잡았다.

"이반!"

"오디노?"

"이 병사들은 교황 경호대가 아닙니다. 아비뇽 출신도 아니고요! 본 대위는 왕실 근위대 소속입니다. 그는 필립 국왕 폐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반은 소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발, 팔 좀 놓아주세요." 오디노는 그의 말에 따랐다. "이제 들은 내용을 말해 보세요." 이반은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저는 목욕탕 창문 아래에 있었어요. 안에서 매스 신부님과 선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선장 휘하 병사들을 먹일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선장은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위협했지만, 수도원장은 곧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장은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했고, 수도원장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뭐라고?! 농담이지?" 이반은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그들이 온 건 "

오디노는 이반의 어깨를 흔들며 그의 주의를 집중시키려 했다. "그리고 더 있어! 클로디우스 그레빌과 그레이트가 그를 도울 거야.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제단 덮개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들은 추기경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기로 동의했어, 이반!"

"그들이 왜 이런 제안에 동의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지만 이는 클로디우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는 추기경에게 우리 측 고위직을 얻는 대가로 도움을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기경은 클로디우스와 그레빌이 지하 묘지의 새로운 관리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단, 추기경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추기경이 문석을 열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는가—"

"그것을 영국군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는 그곳에서 영혼을 불러내어 크레시에서 에드워드 왕의 군대를 공격하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필립 국왕 폐하께서도 이 일에 연루되어 계시지만, 저는 폐하께서 전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악몽이야—모든 게 —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이반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렇군.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수도원 문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고,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였군."

“그리고 경비원들이 우편물을 압수했죠.” 오디노가 덧붙였다.

이반은 뺨을 문질렀다. "맙소사, 이건 심각한 일이야. 끔찍해."

“나사로는 어떻게 하죠? 클로디우스에게 보고해야 할 겁니다. 미구알과 함께 그를 불러들이세요. 그 미구 알은 두건을 쓰고 있을 겁니다.”

이반은 6년 전 클로디우스가 다른 종자들 앞에서 미구알에게 두건을 벗으라고 강요했던 일을 떠올렸다. 보니히 수도원장은 장애가 있는 소녀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두건 착용을 허용했지만, 클로디우스는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반은 격노했고, 오디노가 말리지 않았다면 클로디우스를 때렸을 것이다. 이반은 클로디우스에게 미구알, 타테우스, 특히 라자로를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두건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기에, 클로디우스의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 있었다.

이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추기경께서 문설주를 열어주시면, 관리할 지하 묘지도, 수도원도 필요 없게 되겠군. 라자로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해. 아마 내일 저녁에라도 말이야. 같이 가시겠나?"

"네, 하지만 어떻게 이동해야 할까요?"

"빈 수레가 아직도 마구간 옆에 있네?"

"페스토노가 죽은 후로 대위가 마구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차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운이 좋으면 말 한 마리라도 훔쳐 달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마저도 추격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이반은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걸어서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군."

"가장 가까운 마을은 무라트인데, 걸어서 가기엔 너무 멀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라자로에게 해가 뜰 겁니다 —"

"몇 년 전에 니콜라스 신부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동굴 기억나세요? 그분은 그곳을 '산의 입구'라고 부르셨잖아요?"

네, 그 뿌리는 깊고 어둡습니다!

이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럼 마운틴 마우스로 가자. 여기서 정서쪽이야. 별들이 길을 알려줄 거고, 달빛이 길을 비춰줄 거야. 라자로를 준비시키겠어. 부엌에서 우리 셋이 먹을 걸 좀 찾아와. 그리고 최소한 몇 개라도, 하다못해 아주 조금이라도, 충분히 구해 와 줘."

세 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는 배로 이동한다. 서둘러라, 병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아무것도 남지 않기 전에.

"예."

"그리고 큰 물주머니 세 개도 가져오시오. 전부 지하 묘지로 가져가시오. 물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숨겨 두시오. 그리고 오디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나사로를 위해서라도. 아무도 알아선 안 되요. 니콜라스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잘 알고 있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요."

"만약 당신들이 억류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나사로는 그곳에서 옮겨져야 합니다."

"여기로 즉시 오세요."

"물론입니다. 내일이나 그 직후에 마운틴 마우스로 식량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이반은 지하 묘지를 향해 걸어갔고, 오디오는 식당 주방 쪽으로 몰래 다가갔다. 그때서야 그레빌 수사가 식당 구석에서 슬며시 나타났다. 그는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진 후, 수도원장 사무실로 황급히 사라졌다.

이반은 작은 그릇을 들고 지하 묘지 복도를 급히 걸어 내려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라자로는 이반에게 등을 돌린 채 탁자 옆에 서서 새 햇불을 포장하고 있었다.

이미 준비된 햇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곳.

"수도사님, 거의 다 모았습니다. 완성하려면 천이 더 필요합니다." 라자루스가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렸다.

이반을 마주 보았다. 텅 빈 눈구멍 두 개가 스튜 그릇에 떨어졌다.

"그냥 놔두고, 와서 먹어." 이반이 말했다. 그는 그릇을 들고 돌아서서 나갔다. 라자로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라자로가 평소에 스튜를 먹던 방에서 멀리 떨어진 지하 묘지 깊숙한 곳으로 계속 걸어갔다.

"수도사님,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리 오너라, 아들이야.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 라자로는 그를 따라 터널을 구불구불 지나갔다.

이반은 바스톤 지하 묘실 문 앞에 멈춰 섰다. 그 무덤은 3세기 전에 가르디아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클레어 바스톤 주교의 이름을 따서 파고 명명된 것이었다. 이반은 평 소리와 함께 문을 돌려 잠그고 열었고, 그와 라자로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반은 라자로에게 그릇을 건네주고 지하실의 양초에 불을 붙였다. 동쪽과 남쪽 벽에는 높이 7구의 미라가 60cm 깊이의 벽감에 세로로 놓여 있었다. 매끄러운 서쪽 벽에는 소박한 나무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방 중앙에는 거칠게 다듬은 나무 명상 대가 놓여 있었고, 문 옆에는 좁은 촛대가 있었다. 라자로는 그릇을 탁자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았다. 이반이 다가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생선과 빵. 그래, 대부분 빵이지만, 그래도 먹어야지. 식당에 남은 게 별로 없거든."

"네, 수도사님." 라자루스는 투덜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그는 수도원의 주식인 빵을 싫어하게 되었다. 빵은 허기를 달래기보다는 배를 채우는 데 더 치중되어 있었다. 고기가 훨씬 더 맛있었고, 특히 생선이 그랬다. 그리고 종종, 커다란 생선 덩어리가

매일 밤 저녁 식사 그릇에 담긴 빵이 유난히 커 보이는 것을 보며 그는 속으로 '귀족 소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암기하고 있던 성경 구절에 불경스러운 의미를 더했다.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라자루스." 라자루스는 고개를 들어 이반을 발견했다.

미소. 이반은 둘만 있을 때는 언제나 라자루스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했다.

“네, 아버지.” 그는 순종하며 생선을 뜯어 먹기 시작했다.

“우리는 내일 저녁에 수도원을 떠날 것이다, 아들이.”

나사로는 얼어붙었다. 갑자기 흥분이 치솟은 나사로는 자신이 들은 말을 확인하려고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네, 오디노 신부님도 저희와 함께 가십니다.”

나사로는 벌떡 일어나 탁자를 돌아 건장한 수도승을 향해 작은 팔을 휘둘렀다.

이반은 웃으며 그를 껴안고 등을 토닥였다. “어서 먹어. 시간이 얼마 없어.” 이반은 그를 다시 밥그릇으로 데려갔다. 라자로는 새로운 기운을 얻어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다.

“생선 뼈는 용서가 없단다, 나사로.” 이반이 설교했다.

“예, 아버지.” 라자로는 속도를 늦추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다.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의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식사 후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십시오. 당신의 가운과 두건은 ”

세탁이 필요해요.

그때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무언가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라자로는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마음속 한기가 느껴지는 곳이 바로 문이었다.

“우리가 뭐지?” 이반이 목소리가 mu led 되고 멀리서 들리는 듯 물었다.

라자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문 밖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완전히 새롭지만 본능적인 무언가였다. 익숙했다. 최면에 걸린 듯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시각, 청각, 후각만 남았다.

“누가 왔나?” 이반이 속삭였다. 라자루스의 짐작이 맞았다. 문 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주 큰 무언가가 점점 더 무겁게 기대어 서는 것처럼 탁탁탁 소리가 났다.

이반은 문으로 걸어가 어깨로 문을 꼭 눌렀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사로, 문 너머에 누가 있느냐?” 이반이 속삭였다.

“문이 저절로 열린다.”

“아니, 나사로. 네 귀를 기울여 봐. 저기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

“발소리도, 옷 스치는 소리도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라자로가 말했다.

이반은 콧방귀를 끼었다.

“아버지, 고백할 것이 있어요.” 라자로가 속삭였다.

“그게 뭐예요?”

“지난밤, 문석이 비명을 질렀을 때—” 라자루스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서 말해 봐, 라자루스.”

“저는, 음, 마음속으로, 게이트스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게이트스톤은 제 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죠.”

“당신은 누구 랑 얘기했나요?!”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저는 그저 ”

“갑소사! 나사로, 당신 때문에 우리 둘 다 큰 위험에 처했군요.” 이반은 얼굴을 문지르며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다.

“저는 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이제 떠납니다.”

“예, 수도사님.”

메뚜기 떼처럼 웅웅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아버지와 아들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 마치 열 마리의 메뚜기가 떼 지어 날아다니는 듯했고, 곧 백 마리가 떼 지어 날아다니는 듯했다.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나사로는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탁자 위로 떨쳤다.

이반의 커다란 눈이 방 안을 훑어보았다. 서쪽 벽, 나무 십자가 아래에는

돌들이 마치 임신한 여인의 배처럼 불룩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십자가가 바닥에 떨어져 찢랑거렸다. 돌덩이들이 벽에서 떨어져 나와 서로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다.

해부학적 형태를 띤 그 변종은 곧이어 붉은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눈이 새까만 나체의 여인으로 변모했다. 메뚜기 떼처럼 날아간 그 모습은 사라지고, 여인은 페스토노 수사를 무력한 미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라자루스는 귀를 막고 있던 손을 치우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앞에는 루시파엘 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자루스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붉은 가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슴은 마치 공포에 질린 커다란 눈처럼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사로야, 돌아서라!” 이반이 명령했다. 나사로는 다시 탁자에 머리를 푹 던졌다.

“정말이지, 신부님. 제가 그렇게 못생겼나요?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나요?” 그녀는 많은 여성들이 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를 떠나요.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엘조에게 그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존중심도 없습니까? 그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여자여, 당장 사라지십시오.”

“꼭 그렇게 인사해야 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나사로를 흘끗 보고는 다시 나사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굽혀 팔을 벌렸다. “자, 자. 어머니에게 오렴, 나사로야. 네가 나를 불렀기에 내가 여기 있단다. 어머니를 껴안으렴, 아들이야.”

라자로는 고개를 들어 다시 그녀의 가슴을 찾았다. 축 늘어져 풍만하게 솟아 오른 쌍둥이 가슴은 그녀 아래에서 우아하게 흔들렸다.

“나사로!” 이반이 그를 꾸짖었다.

라자로는 고개를 숙이고 음식 그릇을 향해 말했다. “수도사님, 그녀가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느낍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제발 그만해 줘," 이반이 애원했다.

나사로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그릇을 향해 말했다. "너는 왜 이러는 거냐?"

"그냥 놔둬! 개는 아직 어린애잖아!" 이반이 고향을 질렀다.

루시파엘은 일어서서 이반에게 반박했다. "짐승 같은 놈, 넌 아무것도 명령할 수 없어. 입 다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눈이 영원히 활아져 버릴 테니까."

이반은 나사로 앞으로 나서서 침을 뱉으며 말했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명령할 수 없다."

그녀는 검은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날 시험하려 들지 마, 짐승아."

라자로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반 너머로 그녀의 나체 절반이 보였다. 모든 그로테스크처럼 그녀에게도 배꼽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창백한 배를 따라 내려가 허벅지 사이로 향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돌려 라자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죄악이 그를 뜨겁게 달궜다.

그의 혈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씩 웃었다.

"더러운 종아, 너를 묶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가라."

루시파엘은 웃으며 이반에게 반박했다. "하인이라고? 묶었다고? 짐승아, 지혜를 들어라. 네 그리스도를 묶고 재판하고 채찍질한 것도 나였다. 그의 몸에 못을 박은 것도 나였다."

손과 발을 가진 자, 내가 그의 옆구리를 갈라 조롱하고, 부서지기 쉬운 가시로 그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그를 시험했고, 그도 나를 증언했다. 내가 그를 불쌍한 벌레처럼 짓밟아 영원의 페이지 속으로 밀어 넣었고, 당신이 지금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믿음을 창조했다. 나는 속박된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이여.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를 증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반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라자로는 다시 한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라자루스!" 이반이 그를 꾸짖으며 시야를 더욱 가렸다. 라자루스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가면을 가렸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천장으로 향하고는 방 안에 수많은 섬뜩한 웃음소리를 울려 퍼뜨렸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내 엘조는 너보다 훨씬 더 남자다워. 아니, 그는 남자라고 할 수도 없어."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마야, 이곳에서 떠나가라!"

"맙소사!" 이반이 소리쳤다.

그녀는 목소리를 바꾸어 이반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성벽의 돌멩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내 안에 갇힌 정욕의 산물이며, 불충실하고 배신한 내 욕망의 죄악입니다."

"나사로, 귀를 막아!" 이반이 흉내 낸 목소리 너머로 소리쳤다. 나사로는 귀를 막았다.

그녀는 그를 대신해 말을 이어갔다. "그는 말없이 매일 제게 일깨워 줍니다. 나사로는 제 죄책감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를 볼 때면 제 자신이 보여요. 저는 제 믿음을 그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는 내 죄가 받아야 할 고통을 의의 고통으로 받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사로는 완전히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내 죄는 씻겨 나갈 것이며, 나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해!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우리 곁에서 사라져!” 이반이 고함을 질렀다.

루시파엘은 그녀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며 말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죄책감에 빠져 죽고, 라자로는 그의 죄책감에 빠져 죽도록 내 버려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미라가 놓인 틈새에서, 모든 사체 뒤에서 쥐 떼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구멍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마치 끓어오르는 검은 털의 바다 같았다. 기름지고 병든 털에서 악취가 피어올라 방 안의 공기를 빨아들였다. 촛불이 꺼지고 지하실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라자로의 눈동자가 크게 벌어졌다가 흩어졌다.

겁겹이 드리워진 그림자를 헤치고 나아가니 어머니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빛나는 검은 눈은 그들 사이의 어둠보다 더욱 검었다.

쥐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왔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눈, 팍 다문 이빨, 바늘처럼 날카로운 발톱, 채찍처럼 휘두르는 회색 꼬리가 바닥 구석구석을 뒤덮었다. 더러운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는 마치 수백만 마리 전갈의 다리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쥐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하나로 뒤섞였고, 그들은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설치류들은 이반의 샌들에 달려들었다.

그것들은 그의 옷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할퀴고 갇아먹으며 그를 공격했다. 이반은 비명을 지르며 할퀴는 것들을 통째로 뜯어냈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검은 역병의 바다가 그의 살점을 씻어내며 그를 삼켜버렸다.

갑자기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반은 텅 빈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여자는 그 위에 서서 웃고 있었다. 환상은 사라졌지만, 찢어진 살점의 고통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라자루스는 이반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이반은 옆으로 굴러 구토를 했다. 라자루스는 일어서서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이반을 넘어 여자에게 맞서며 쇠 소리를 내고, 귀를 뒤로 젖히고 굵은 송곳니를 드러냈다. 여자는 눈썹을 찡그리며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 마치 혼란스러운 개 같았다. 그러더니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뛰어올라 라자루스를 쳐내 미라 보관소 안으로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무의식의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잡아당겨 그의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이반의 귀에 속삭였다. 많은 여인들의 목소리, “누구를 증언해야 할지 아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내 땅에서 돌맹이는 당신이 놀랄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놀랄 대상이 아닙니다. 엘조는 당신이 놀랄 대상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남의 운명에 간섭하는 자는 용의 꼬리를 잡는 자와 같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떨어뜨리고 일어서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계속했다. "진실로, 나를 증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 나는 천사들의 천사이자 군단의 지도자인 루시파엘이다. 네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가 있다. 네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너를 끝장냈을 것이다. 당장.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짐승아." 이반은 할떡이며 의식을 잃어갔다.

그녀는 몸을 돌렸고,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벽을 뚫고 사라졌다. 칠흑 같은 방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마치 무덤에 어울리는 죽음과 같은 고요함이었다.

~*~

오디노 수사는 흠친 식량을 수도사 기숙사에 5일 치쯤 숨겨둔 후,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안뜰을 가로질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하 묘지 입구가 있는 건물의 옆문으로 살며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걷던 중, 병사들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행군하는 발소리와 금속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위로 본 대위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다. "셋 다! 키 큰 녀석, 뚱뚱한 녀석, 그리고 가면 쓴 기사까지!" 모든 터널과 묘실을 샅샅이 뒤져라! 만약 그들을 붙잡는다면 목욕탕에 가두고 즉시 내게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대위님." 이라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자, 이제 기숙사로 갑시다. 남자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병사들이 대열을 나누자 오디노는 깊은 아치 아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쪽 부대는 지하 묘지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양쪽으로 향했고, 본은 나머지 병사들과 함께 돌아서서 오디노를 향해 곧장 진격했다. 오디노는 배를 움켜쥐고 구석으로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팔이 닿을 듯, 머리카락 한 올까지 셀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병사들이 한 명씩 그를 스쳐 지나가며 건물 밖으로 나갔다.

오디노는 그들을 피해 황급히 도망쳐 나와 사방을 살피며 옆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마치 벌거벗은 채, 굶주린 늑대 200마리에 둘러싸인 빛나는 돼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수도원 외벽 바로 옆에 있는 상록수 덩굴 뒤에 몸을 숨기고, 얇힌 나뭇가지 사이로 안뜰을 가로지르는 소규모 병사들의 순찰을 엿보았다. 숨을 할떡이며 맑은 공기 속에 입김을 내뿜는 오디노는 돌담에 기대어 용기를 북돋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는 대장의 부하들이 이반을 찾기 전에 그를 찾아야 했다. 라자로의 두건을 벗지 못하게 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애써야 했다. 놀랍고도 냉정한 깨달음은, 그는 자신이 수적으로 열세이고, 엄폐물도 없으며, 달리 무엇을 할 시간도 없다는 것이었다. 숨이 턱 막히고, 어쩌면 순식간에 닥쳐올 본격적인 비극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디노의 샌들 밑 약 9미터 아래, 지하 묘지 깊숙한 곳에 문이 있었다.

바스톤 지하 묘실 문이 강제로 열렸다. 희미하게 비치는 햇불이 어둠을 더듬었다. "잡았다! 바로 여기야!" 햇불을 든 병사가 복도를 향해 외쳤다. 바닥에 누워 있던 이반은 군화 소리가 밀려오자 몸을 움찔거렸다. 병사들이 지하 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두 명의 경비병이 이반을 일으켜 세웠다.

“뚱뚱한 수도사 오디노는 어디 있지?” 한 병사가 그에게 물었다. 또 다른 병사는 바닥에서 나사로의 가면을 발견하고 이반에게 질문하던 병사에게 건네주었다. 시체 너머 어둠 속에는 깊고 푸른 눈 한 쌍이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아이의 가면이죠.” 병사가 물었다. 그는 무덤 속 쥐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남은 옷자락을 머리 위로 넘겼다.

몇몇 남자들이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춰 보았지만, 벽에 꽂힌 미라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반은 미라 뒤에서 새 옷자락을 발견했다. 바로 나사로의 옷이었다. 옷자락이 살짝 움직였다.

“넘어졌나 봐요. 피가 나나요? 여기 좀 보세요?” 이반은 그들에게 물으며 그들의 손전등 불빛을 다시 자신에게 비쳤다.

“아니요. 당신은 왜 이 무덤에 있는 겁니까?”

이반은 얼굴을 문지르며 병사들을 지나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기도하러 왔다가 어둠 속으로 빠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가면은 어찌지? 소년은 어디 있지?”

“오, 그는 그런 가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건 낡아서 이제는 누더기일 뿐이죠. 나사로는 갇혀 있어요.”

“제발,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이반은 억지로 문으로 향했다.

지하 묘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슬쩍 보고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소년의 숙소는 어디입니까?” 병사가 물었다.

“이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그럼 오디노 수사는 어디 있지?”

“제가 기억하기로 그는 기숙사 감방에 있었어요. 라자로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반은 병사들에게서 몸을 빼냈다. 병사들은 그를 더 세게 붙잡았다.

“수도사님, 제 명령은 당신을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뭐라고?! 체포라고?! 대체 무슨 죄로?” 이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병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수색을 계속하십시오. 소년의 숙소를 찾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는 이반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도사님. 저도 당신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부디 평화롭게 따라와 주십시오." 이반은 기꺼이 동의했다.

나사로에게 떠나가는 병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느껴졌다. 납골당 안에는 마찬가지로 석화된 사제 아래에 석화된 채 누워 있는 전자의 시신이 있었다.

바스톤 지하 묘지의 클레레즈 바스톤 수도원장의 유해였다. 그 유해는 베니온 터널에 나라마신을 봉인하고 문석의 언어와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사제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바스톤 수도원장의 시신은 그 유해 아래에 완전히 숨겨져 있어 라자로가 즉시 발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일조했다.

1347년 10월 1일

나사로와 이반 모두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구나.' 새벽녘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아침 기도 소리도, 식당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도, 저녁 기숙사 명상과 기도를 알리는 뚜렷한 종소리도 없는 수도원에는, 기도와 노동이라는 영원하고 신성한 일과에 대한 규칙이나 규칙적인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죽음처럼 고요한 성당 종소리 아래, 이상하리만치 분주한 수도원 안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사로와 이반은 서로 떨어져 갇혀 있었다. 나사로는 부서지고 으스러지는 시체 아래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이반은 경비가 삼엄한 수도원 목욕탕에 갇혀 탈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수도원 주변의 소리를 비슷하게 들었다. 평소 조용해야 할 지하 묘지에는 병사들의 외침, 언쟁, 심지어 간간이 들리는 웃음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평소라면 수도사들이 엄숙한 명상에 잠겨 조용히 거닐던 수도원 안뜰에는,

그곳은 시끄러운 병사들, 바람에 흔들리는 말들, 그리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로 북적였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죽은 사제 밑에 갇힌 나사로는 축축한 숨결로 좁은 공간을 숨 막힐 듯이 뜨겁게 달궜다. 땀이 끈적거리는 옷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낡은 시체 아래의 습기는 썩어가는 악취를 더욱 강하게 되살려 나사로의 좁은 공간을 마치 썩은 장막처럼, 만질 수 있는 악취로 가득 채웠다. 반면 경계하는 병사들 뒤에 갇힌 이반은 차가운 돌로 된 목욕탕 안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 그는 옷과 샌들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목욕탕 수영장 주위를 맴돌았다. 한때 손가락과 발가락을 육신거리던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그의 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사로와 이반 모두에게, 그들의 고통 속에서 시간은 끝없이 길게 느껴지는 비참한 하루로 흘러갔다. 마침내, 어둠이 깔리고 긴 그림자들이 수도원을 뒤덮었다.

두 명의 군인이 목욕탕 정문 밖에 서 있는 동안, 이반은 깊고 좁은 창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소년이라면 쉽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른이라면...'

'그 체격의 남자.' 그는 돌로 만든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경비가 삼엄한 입구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마땅한 탈출구는 없었다.

남자 중 한 명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이반을 지나쳤다. 건물 뒤쪽 모퉁이에 있는 높은 단상에 멈춰 서서 나무 덮개를 옆으로 밀어내고 소변을 보았다. 그리고는 어깨 너머로 이반에게 물었다. "그래서 왜 체포된 거지?"

이반은 비꼬는 말투로 "당신네 대위의 자백은 듣기 싫었소." 라고 쏘아붙였다.

경비병은 껄껄 웃으며 구멍 위에 블록을 다시 덮고 문 밖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다른 경비병에게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그 경비병은 잠시 이반을 훑어보더니 웃었다.

"쉬잇!" 뒷벽 창문에서 쉿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디노의 머리가 좁은 구멍으로 쑥 들어왔다.

이반은 창문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디노, 나사로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지하 묘지에 계시는군요. 경비병들이 아직 우리를 찾지 못했나 보군요."

"오디노. 내 말 잘 들어. 옷을 넉넉히 가져와. 두 팔 가득이 꺼안고 와."

"출니?"

"어서 해, 오디노. 서둘러."

오디노는 사라졌다가 마침내 창문을 통해 천 멍치를 밀어 넣으며 돌아왔다.

"나는 서쪽 담벼락 덩굴 뒤에 숨어 있어." 오디노가 쉿 소리를 내며 말했다.

"좋아! 시작!"

오디노는 슬며시 자리를 떠났다.

이반은 옷자락 하나를 작은 창문에 반쯤 걸쳐 걸쳤다. 그런 다음 창문 하나를 열었다.

그는 옷자락을 풀어서 나머지 천으로 옷의 구멍, 소매, 두건을 채웠다.

그는 밧줄 벨트를 마네킹에 벨트처럼 둘렀다. 그리고 마네킹의 등을 받쳐서 세웠다.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그는 목욕탕 뒤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변소의 나무 덮개를 벗기고 받침대 전체를 뒤로 젖혔다. 그는 역겨운 흙구덩이 속으로 기어 내려가 받침대를 다시 몸 위로 덮고, 구멍 위에 나무 블록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다.

잠시 후, 그는 발소리와 두 번째 경비병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비병은 임시로 만든 마네킹에게 "대위의 자백을 듣기를 거부했군?"이라고 물었다. 병사는 웃었다.

간수가 변기 뚜껑에서 나무 블록을 들어 올리자 이반은 몸을 뒤로 젖히고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간수가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간수는 준비를 마쳤다. 이반은 축축하고 따뜻한 옷자락이 떨어지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다.

병사는 어깨 너머로 마네킹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악마조차도 감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시냇물이 멈췄다. 경비원은 뒤로 뛰어올랐다.

"그래! 그분이 가셨어! 수도사님이 가셨어!"

첫 번째 경비병이 달려왔다. 두 번째 경비병은 창문에 걸린 옷을 가리키며 "탈옥했어요!"라고 말했다.

"너무 작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들은 목욕탕을 살살이 뒤지며 부수고 다녔는데, 그때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그놈이 탈출했어! 대장님께서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두 명을 처형할 생각이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 그들은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가 건물 주위를 돌았다. 이반은 나무 변기통을 뒤로 젖히고 구멍에서 몸을 빼내 도망쳤다.

잠시 후, 이반은 오디노가 덩굴 속으로 손짓하는 것을 발견했다. 오디노는 뚱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코와 입을 손으로 가렸다. "무슨 사고라도 났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오디노."

차가운 황혼녘 공기 속에서 그들의 입김이 하얗게 서렸다. 오디노는 이반에게서 몸을 살짝 떼었고, 얼굴에는 남아있는 체취 때문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오디노, 자네가 아는 게 뭐지? 전부 말해 봐."

"추기경께서 문석을 열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성당에 계십니다."

클로디우스, 그레빌, 그리고 그레이트. 그는 수도승들과 종자들을 기숙사에 가두라고 명령했고, 대장은 모든 출입구의 경비를 두 배로 늘렸다."

"그들이 시도할 때 나사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너무 위험하잖아? 우리가 그를 데려와야 해." 오늘 저녁 수도원을 떠나는데,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론!"

"그럼 오늘 밤 마운틴스 마우스로 출발합니다. 식량과 물은 확보하셨나요?"

"이반, 식량은 내 감방에 있지만, 간수들을 지나갈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식량 없이 가야겠군." 이반은 별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당장 나사로를 데려오겠다."

"그가 혼자서 지하 묘지를 떠났을 리는 없어요." 오디노가 말했다. "혹시 우물 구멍에 숨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바스톤 지하 묘지에 있어. 여기 있어." 이반은 그를 지나쳐 덩굴 속으로 들어가 지하 묘지가 있는 건물의 측면 입구로 달려갔다.

입구.

그때 오디노는 건물 반대편에서 격분한 비명 소리를 듣고 뻑뻑한 덩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무슨 소란인지 살폈다. 본 대위와 횃불을 든 많은 경비병들이 모퉁이 주변에 모여 있었다. 본 대위는 사방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건물을 봉쇄해! 너희 네 명은 거기서 두 명씩 짝을 지어! 등을 맞대고 경계를 서! 너희 모두는 반대편에서 간격을 두고 경계를 서! 너희 여섯 명은 여기 남아! 모든 문과 창문을 잠가!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 움직여!"

그러자 선장은 여전히 고향을 지르면서, 이번에는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 녀석이 도망치도록 내버려 뒀잖아!" "무능한 놈들!" 수많은 병사들이 건물 정문으로 몰려들었고, 다른 병사들은 이반이 얼마 전 건물에 들어온 측면 출입구를 확보했다.

그 자신.

오디노는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돌벽을 내리쳤다. 비극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이반은 라자루스를 부르며 복도를 따라 전력 질주했다. 거의 동시에 라자루스가 바스톤 지하 묘지로 이어지는 터널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다. 두 사람은 두 팔을 벌려 서로를 껴안았다.

이반은 그를 떼어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내 말 잘 들어, 나사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해했나요?"

"네, 아버지."

"지금 출발한다! 멈추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 서둘러 내 곁에 꼭 붙어 있어!"

이반은 그를 놓아주고 몸을 돌려 터널 위로 달려 올라갔고, 라자로는 마치 급사등이 난쟁이 유령처럼 그의 뒤를 바짝 따라갔다. 그들은 계단 통로 모퉁이를 돌아 갑자기 멈춰 섰다.

그들 앞에서 본 대위는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계단을 내려왔다.

"이제 그만. 추격은 끝났습니다, 신부님."

이반이 나사로 앞에 나섰다. 가망이 없었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우리는 평화롭게 갈 겁니다." 이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이고 독실한 수도사처럼 두 손을 모았다.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똥똥한 애는 어디 있지?"

"오디노 수사님?"

"똑같아요."

"나는 그의 행방을 모른다."

본은 이반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말했다. "지금쯤이면 원장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수도원에서 엉뚱한 수도사 두 명과 급사등이 기사 한 명을 쫓아다니고 있군. 자네는 날 귀찮게 하려고 온 게 분명해. 자, 이제 모든 사제들이 기숙사에 있고— 똥똥한 놈 하나 빼고는 모두 소재가 파악됐고—자네가 체포되기 전에는 목욕탕에 사제복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는 어디 있습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

본은 몸을 돌려 휙 돌아서더니 이반의 턱에 주먹을 내리쳤다. 라자루스는 쉿 소리를 냈다.

"라자루스!" 이반이 그를 멈춰 세웠다. 이반은 앞으로 달려들어 주먹을 짝 친 채 대장의 턱을 가격하며 모두의 시선을 돌렸다. 경비병들이 이반을 제지하는 동안 본은 정신을 차렸다.

“아, 열정적인 신부로군.” 본은 비뚤어진 입술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 녀석을 비켜서게 해. 짐승처럼 말하는군.”

경비병들이 몸부림치는 이반을 뒤로 밀쳐냈다. 라자루스는 뒤로 뛰어올랐고, 텅 빈 눈으로 본을 올려다보았다.

“우리는 평화롭게 갈 거라고 했잖아!” 이반이 쏘아붙였다. “단지 그 아이는 해치지 마! 병들었어!”

몇몇 경비병들이 물러섰다. 그러나 대장은 굳건히 서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경비병에게 “너. 가면을 벗겨라.” 라고 명령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반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병사는 라자로의 후드를 잡아당겨 벗겨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총을 뽑아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쉬익!” 라자루스는 뒷걸음질치는 본을 향해 침을 뱉었다. 푸른 눈은 크게 뜨고, 험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납작하게 접힌 긴 귀, 그리고 위협적인 송곳니를 드러냈다.

“악마 같은 녀석이군!” 한 명이 외쳤다. 다른 사람들은 경외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돼!” 이반은 속박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이 있던 경비병을 벽에 내던졌다. 여러 경비병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이반은 미친 거인처럼 그들을 내던졌다.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된 사이, 본은 이반에게 달려들어 흰 손잡이가 달린 단검을 그의 갈비뼈 아래에 꽂았다. 이반은 신음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도망쳐, 라자루스!”

라자로는 칼과 피, 그리고 이반의 눈에 비친 끔찍한 무언가를 목격했다.

“끼익!” 라자루스의 매 같은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귀가 멍멍해진 병사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반은 바닥에 주저앉

아 신음했다. “서둘러, 야아! 지금 당장!” 지하 묘지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자, 라자루스는 불타는 유령처럼 몸을 돌려 복도를 따라 깊숙한 지하 터널 속으로 날아갔다.

병사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무기를 내려놓은 채,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이반과 본을 멍하니 응시했다. 이반은 본에게 신음하며 말했다. “그는 해를 끼칠 생각이 없어. 그의 마음은 신과 함께 있어. 제발, 그를 내버려 둬. 그냥 보내줘.”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고 한숨을 쉬며 벽의 갈라진 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즐긴 듯 멍하니 응시했다.

이어진 침묵 속에서 본은 시선을 들어 부하들이 자신의 손에 든 단검을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검의 칼날에는 사제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칼을 깨끗이 닦고 칼집에 넣은 후 침묵을 깨고 말했다. “계속 가자.” 그는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고, 부하들은 마치 갈라지는 바다처럼 그의 앞을 비켜섰다. 본은 멈춰 서서 부하들에게 말했다. “저놈을 체포해라. 칼이나 다른 무기는 안 된다. 저 악마 같은 녀석은 다치지 않게 해 줘야 한다.” 부하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그의 주위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지금!”

상사는 "대위님 말씀 들었지! 움직여! 지하 묘지로!"라고 외 " 그는 아래로 내려갔다
쳤다. 병사들은 칼을 거두고 그를 따라 지하 묘지로 쏟아져 들어갔다. 상사의 명령이 터널 아래
로 메아리치듯 퍼져 나갔다 . "저쪽 세 명! 저 문들을 확인해! 저 안에 있는 두 명! 구석구석
다 수색해!"

계단에서 본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하들에게 말했다. "제대로 된 사제라면 짐승을 보호하
지 않아 ." 그는 여섯 명을 불러 모았다 . "나와 함께 가자. 안뜰에서 내 병력을 준비시켰겠지 ?"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예, 대위님. 가장 건장한 남자 100명이 지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라고 대답했다.

본은 어깨 너머로 이반의 시신을 흘끗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이제 끝내자."

[6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창작 되었습니다. d는 오직 ~ 에 헌정하기 위해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